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언론 기사 모음**

(사) 한일경제협회

한일 경제인 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신산업 협력 방안 논의

입력 2023.05.16. 오후 3:1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의 일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경제인간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가졌다.

한일 경제인 회의는 양국 경제인의 연례 교류 행사다. 한일 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여파로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240여명의 양국 정부, 경제단체,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연계 확대 ▲경제·인재·문화 등 상호교류 증진 ▲세계박람회 협력(2025년 일본국제박람회 성공-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에서는 한일 양국간 자동차·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주목한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우주·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발맞춰 요코하마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정부 간 긴밀한 협의로 한일 간 경제협력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선두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 경제인은 이번 회의에 이어 다음달에는 부산에서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연다. 부산 회의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방안과 양국의 청년 인재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4년 만에 마주한 한일경제인들 "양국 시너지 효과 기대"

입력 2023-05-16 16:34:45 수정 2023-05-16 16:37:27 경제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4년 만에 만남을 갖고 공급망 재편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오늘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분야 협력을 약속한 뒤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 간 대표적인 연례 교류 행사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회의 첫째 날엔 한국 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류두형 한화 모멘텀 및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전 외무성 사무차관인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함께했습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협력, 경제안보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보장, 탈탄소 추구 등 한일 양국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 같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간다면 세계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을 둘러싼 주변국과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공통 과제도 많아 서로 연계하고 보완함으로써 ‘윈윈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경제인들은 오는 17일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한·일 경제인 4년만에 만나 “누가 이기고 지는것 아냐, 시너지 내자”

입력2023.05.16. 오후 5:18 수정2023.05.16. 오후 5:20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들이 4년 만에 마주 앉아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다.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대표적 연례 교류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열려오다 이번에 대면 행사를 재개했다.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9일 만이다.

이날 행사엔 한국 측 대표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그룹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일한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성 사무차관), 아소 유타카아소시멘트 회장 등이 자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함께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두 나라 경제는 공급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서로 보완하며 세계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파트너다. 한·일 간 미래는 결코 누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절대 아니기에, 상호이해 속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 시장 1위를 위해 서로 우수한 장점을 살려 협업한다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 같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양국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간다면 세계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을 둘러싼 주변국과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 과제도 많아 서로 연계하고 보완함으로써 ‘원원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또다시 악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경제인들이 더욱 폭넓게 교류하고 신뢰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이번 회의 결과를 담아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韓-日 경제인 240명 4년만에 대면 회의

입력 2023.05.17. 오전 3:03

**“서로 협조-보완땀 더 큰 시너지”
경제분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1969년부터 매년 열린 한일경제인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양희성 기자 yohan@donga.com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그동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으로만 열려 왔다.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는 16일 서울 롯데 소공동호텔에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제55회 한일경제인회

의를 개최했다. 두 나라에서 240명 안팎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 및 12년 만의 셔틀외교 재개 등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한일 협력 분위기를 경제계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두 나라는 공급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서로 보완하며 세계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한일 경제 협력은 서로가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도 "양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가 엄중해질수록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통의 과제도 많아 서로 협조하고 상호 보완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164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과 아이보시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성 사무차관),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75명이 참석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한일경제인회의의 4년 만에 대면 개최... "협력의 끈 유지해 평화·번영 힘써야"

입력2023.05.16. 오후 5:11 수정2023.05.16. 오후 5:21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한일 셔틀외교 재개에 맞춰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 간 대표적인 연례 교류 행사로,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240여 명의 양국 정부, 경제단체,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가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양국의 기업들이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혔다.

양국 경제인들은 신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연계 확대, 경제·인재·문화 등 상호교류 증진, 세계박람회 협력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 성공-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은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정부 간 긴밀한 협의로 한일 간 경제협력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선두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토] 악수 나누는 한·일 양국 경제인회 회장

입력2023.05.17. 오후 4:44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폐막식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5.17 [한주형기자]

한주형 기자(moment@mk.co.kr)

4년 만에 모인 韓日경제인회의..."경제협력 가속화"

입력2023.05.16. 오후 4:47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로
역대 최대 규모 240명 참가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개발
한일FTA재추진 훈풍도

"중·고교서 양국 언어 교육"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 스틸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오가키 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한일경제협회>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인 240여 명이 4년만에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과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 개발 등이 논의돼 눈길을 끈다.

16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함께 창조'를 주제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일본 측 75명을 비롯한 240여 명의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개최된 한일 경제인간 연례 교류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화상으로 진행된 뒤 4년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만에 재개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일 외교 관계가 회복된 후 양국의 경제 협력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이 방문했다.

개회식에서 김윤 회장은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이래 한해도 회의를 거르지 않았다"며 "그간 양국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도 경제인들은 신뢰와 소통, 협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는 공급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양국은 서로 보완하며 세계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한일 간의 미래는 결코 누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절대 아니기에 상호이해 속에 선의로 경쟁하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회장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 만의 셔틀 외교 재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심사 우대국 재지정 등 개선을 위한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세계정세가 엄중해질수록 한일 양국에 의한 협력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양국의 경제 연계 확대 방안으로 한일 FTA재추진, 다자 무역

협정 활용을 위한 초국가적협력 등이 다뤄졌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아소 부회장은 지난 3월 한일 경제계 전문가들이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양측은 한일 FTA를 시급히 재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간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해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다자 FTA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 FTA를 활용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 규범 통일, 생산요소 표준화, 공급망 통합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기술 부문에서 협력을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부회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일본 기업에 한국 기업이 좋은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그린 성장’ 전략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유사해 양국이 협력적 자원외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기술을 개발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 부회장은 “희토류 자원무기화로 인해 공급망은 불안정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희토류 대체기술을 공동 개발할 역량과 유인이 있기에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같은 제조업에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키 이사는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상대국 언어를 교육해야 하고 양국 유학생에 대한 여러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 이튿날인 17일에는 한일경제 연계 확대, 한일 상호교류 증진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회의는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손잡은 韓日기업인... "함께 난국 이겨내자"

입력 2023.05.16. 오후 5:42

55년 이어온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로
역대 최대 규모 240명 참가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개발
한일 FTA 재추진 논의도
"중·고교서 양국 언어 교육"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막했다. 왼쪽부터 아이보시 고이치 주대한민국일본특명전권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호영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인 240여 명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과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 개발 등이 논의돼 눈길을 끈다.

16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일본 측 75명을 비롯한 240여 명의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개최돼온 한일 경제인 간 연례 교류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영상으로 진행해오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일 외교 관계가 회복된 후 양국 경제 협력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대한민국일본특명전권대사,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이사(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이 방문했다.

개회식에서 김 회장은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이래 한 해도 회의를 거르지 않았다"며 "그간 양국 정치·외교 분야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도 경제인들은 신뢰와 소통, 협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가 엄중해질수록 한일 양국에 의한 협력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양국 경제 연계 확대 방안으로 한일 FTA재추진, 다자 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 등이 다뤄졌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아소 부회장은 지난 3월 한일 경제계 전문가들이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양측은 한일 FTA를 시급히 재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간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을 전개해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기술을 개발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 부회장은 "희토류 자원 무기화로 공급망은 불안정하고 한국과 일본은 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희토류 대체기술을 공동 개발할 역량과 유인이 있기에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키 이사는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상대국 언어를 교육해야 하고 양국 유학생에 대한 여러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 이튿날인 17일에는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정유정 기자 / 서진우 기자]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서진우 기자(jwsuh@mk.co.kr)

韓·日경제인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입력2023.05.17. 오후 5:24

'새로운 미래 창조' 공동성명 경제교류 강화 등 3개항 담아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 연계와 교류, 세계박람회(엑스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폐회했다. 양국 경제인은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경제 연계확대, 상호 교류 증진, 세계박람회 상호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 대표를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하자는 양국의공감대가 큰 물줄기를 이뤘다"며 "양국 경제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환경이 조성돼 크게 환영한다"며 "한일 경제인들은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와 제3국 공동 프로젝트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웃인 한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최근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을 계기로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는 물론 인재·문화·지역 간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박람회 성공을 향한 협력도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인들이 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해 164명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을 비롯한 75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으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을 넘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가 열렸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4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송민근 기자]

송민근 기자(stargazer@mk.co.kr)

[포토] 4년 만에 한일경제인회의 재개

입력2023.05.16. 오후 4:36 수정2023.05.16. 오후 4:41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앞줄 오른쪽부터),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강은구 영상정보부장 egkang@hankyung.com

[포토] 韓日경제인회의 서울서 개최

입력2023.05.17. 오전 1:28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부터)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맨 왼쪽)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은구 영상정보부장 egkang@hankyung.com

한일경제인회의의 대면 재개..."한일, 서로 소중한 파트너"

입력 2023.05.16. 오후 3:50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40여명이 오늘(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만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2년 만에 양자 상호방문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3.16 도쿄, 5.7 서울) 이후에 개최된 한일 간 가장 큰 규모의 경제인 회의입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한일 양국의 경제는 공급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서로 보완하며 세계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파트너이다"라며 "상호이해 속에 선의로 경쟁하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의 우수한 장점을 살려 협업을 해나간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

면서 12년 만의 셔틀외교 재개, GSOMA정상화, 수출심사 우대국 재지정 등 개선에 화답했습니다.

사사키 회장은 '경제 연계 확대'와 관련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세계정세가 엄중해질수록 한일 양국에 의한 협력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에는 공통의 과제도 많아 제후를 통해서 서로 보완함으로써 시너지가 생겨나 결과적으로 1+1이 2를 넘어선 4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5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 류두형 한화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164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를 포함해 75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양국 단장의 개회인사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의 축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의 기조연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 제안이 이어집니다.

내일(17일)은 '한일경제연계 확대', '한일 상호교류 증진' 등 논의가 이뤄지며, 양국 경제인 '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ghjn>

이민후 기자(who@sbs.co.kr)

韓日 경제인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협력"

입력 2023.05.18. 오전 3:03

“첨단기술 제3국 진출-신산업 협업”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사업을 통한 민간교류로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경제인들의 중층적인 교류가 견고해지면 반석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는 정치·외교적 변화가 생기더라도 민간 경제 협력은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3가지 합의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과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인재, 문화,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양측 경제인이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더욱 진전돼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사키 회장도 “글로벌 경제환경이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한일경제인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신산업 협업 강화"

입력2023.05.17. 오후 7:51 수정2023.05.17. 오후 8:51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한일경제인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부산엑스포 유치·오사카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5.17/뉴스1

"경제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사업을 통한 민간교류로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경제인들의 중층적인 교류가 견고해지면 반석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는 정치·외교적인 변화가 생기더라도 민간 경제 협력은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3가지 합의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과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인재, 문화,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양측 경제인이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간 대화 더욱 진전돼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사키 회장도 “글로벌 경제환경이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4년 만에 마주한 한일경제인들 "양국 시너지 효과기대"

송고시간 2023-05-16 16:22

지정학적 위기·공급망 재편 속 첨단산업 등 협력 다짐
손경식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日 지지 부탁"



한일경제인회의의 양국 단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지정학적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모았다.

양국 경제인 간 대표적인 연례 교류 행사인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9일만에 열렸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이기도 하다.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회의 첫째 날엔 한국 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류두형 한화 모멘텀 및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전 외무성 사무차관인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이 자리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함께했다.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개회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협력, 경제안보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보장, 탈탄소 추구 등 한일 양국의 과제를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 같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일본에서 주목받는 K팝을 거론하며 양국 미래세대들의 교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곧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며 "한국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일본 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인사말 하는 김윤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이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을 둘러싼 주변국과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공통 과제도 많아 서로 연계하고 보완함으로써 '원원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또다시 악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경제인들이 더욱 폭넓게 교류하고 신뢰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자"고 덧붙였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강화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셔틀 외교가 실현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말 기쁘다”고 했다.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는 미래세대의 교류를 위해 양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일경제인들은 오는 17일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wise@yna.co.kr

이슬기(wise@yna.co.kr)

16~17일 한일경제인회의... "새시대 한일관계, 공동가치 모색"

입력2023.05.15. 오후 6:32 수정2023.05.15. 오후 6:33



인사말 하는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 일한경제협회 관계자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16~17일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다.

15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열린다. 4년 만의 대면 회의이기도 하다.

한국 측의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측의 일한경제협회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최한다.

첫날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회장 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인 김윤 (주)삼양홀딩스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이 나란히 개회사를 한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인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주) 이사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은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둘째 날 회의에서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한일 경제연계 확대' 주제 발표 등이 이어진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올해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윤 회장은 초대의 글에서 "이번 회의는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맞이해 열리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 침체 속에 한일 간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 공동가치 창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이슬기(wise@yna.co.kr)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 변화...한일 반도체 협력 강화해야"

입력2023.05.17. 오전 11:20 수정2023.05.17. 오후 5:01

한일경제인회의 세미나...양국 경제 협력 방안 논의

박정규 교수 "무어의 법칙 한계...韓 미세공정-日 패키징 협력"



한일경제인회의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제1세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3.5.17 kih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규 한양대 겸임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무어의 법칙'이 종언을 맞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면서 반도체 집적도가 24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 난다는 '무어의 법칙'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세화 공정에서 앞서가던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직접도 향상이 정체되면서 패키징 등 다른 형태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 원리가 복잡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첨단 패키지 기술로 미세화 공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일본 반도체 산업이 패키징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는 일본의 (패키징)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일본도 (한국의) 미세공정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며 양국의 '윈-윈'(Win-win)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과 일본 기업은 비교적 비슷한 기업 조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서로 경쟁하면서 협조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술·사회·문화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회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총장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세계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종속 변수였는데, 이제는 독립변수로 주도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 간 대표적 연례 교류 행사로, 올해 행사는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한일경제인들은 17일 오후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ihun@yna.co.kr

김기훈(kihun@yna.co.kr)

한일경제인들, '신산업 협력강화·상호교류 촉진' 합의(종합)

입력2023.05.17. 오후 5:24 수정2023.05.17. 오후 5:28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한일관계 개선 환영, 경협 네트워크 강화"
"2030엑스포 부산 개최에 협력"



한일 경제인들, 공동성명서 채택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이승연 기자 =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면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의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16~17일 이틀간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 164명, 일본 측에서 75명이 참가했다. 4년 만에 재개된 대면회의이기도 하다.

공동성명에는 ▲ 경제 연계의 확대 ▲ 상호 교류의 촉진 ▲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을 향한 협력 등 3개 부문의 합의가 담겼다.

양국 경제인들은 우선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확인한다"며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교류를 촉진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인들은 특히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엑스포의 부산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본 측 단장은 한일경제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경제인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고, 김윤 한국 측 단장은 "양국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박정규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패키징 기술, 한국의 미세공정 기술의 교류를 통한 '원-원' 가능성을 짚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동안 세계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종속 변수였는데, 이제는 독립 변수로 주도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제1세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3.5.17 kihun@yna.co.kr

이어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 마츠무라 아키히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은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의 협정을 거론하며 "국가 간 관계는 냉각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간 교류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지역외교는 국가 간 관계가 좋지 않아도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관광 산업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에 갈 수 있듯이 일본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해 내수시장 축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hun@yna.co.kr, winkite@yna.co.kr

이승연(winkite@yna.co.kr),

김기훈(kihun@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입력2023.05.16. 오후 3:31 수정2023.05.16. 오후 3:32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최재구(jjaeck9@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입력2023.05.16. 오후 3:31 수정2023.05.16. 오후 3:32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개회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최재구(jjaeck9@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입력2023.05.16. 오후 3:31 수정2023.05.16. 오후 3:32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최재구(jjaeck9@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입력2023.05.16. 오후 3:31 수정2023.05.16. 오후 3:32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양국 인사들이 개회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최재구(jjaeck9@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

송고시간 2023-05-17 16:4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김윤 단장(오른쪽)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이 회의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7

utzz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

입력2023.05.17. 오후 4:40 수정2023.05.17. 오후 4:41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김윤 단장(오른쪽)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이 회의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7

utzza@yna.co.kr 김주성(utzza@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채택

입력2023.05.17. 오후 4:43 수정2023.05.17. 오후 4:4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김윤 단장(오른쪽)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이 회의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7

utzza@yna.co.kr 김주성(utzza@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발표

입력2023.05.17. 오후 4:39 수정2023.05.17. 오후 4:40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이 회의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7

utzza@yna.co.kr 김주성(utzza@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세미나

입력2023.05.17. 오전 11:23 수정2023.05.17. 오전 11:24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제1세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3.5.17

kihun@yna.co.kr

김기훈(kihun@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신산업 협력' 공동성명...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종합2보)

입력2023.05.17. 오후 6:38 수정2023.05.17. 오후 6:39

상호교류 촉진도..."눈에 보이는 성과는 제3국 진출일 것"



한일 경제인들, 공동성명서 채택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이승연 기자 =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면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의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16~17일 이틀간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 164명, 일본 측에서 75명이 참가했다. 4년 만에 재개된 대면회의이기도 하다.

공동성명에는 ▲ 경제 연계의 확대 ▲ 상호 교류의 촉진 ▲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을 향한 협력 등 3개 부문의 합의가 담겼다.

양국 경제인들은 우선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 확인한다"며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교류를 촉진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인들은 특히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엑스포의 부산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윤 한국 측 단장은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건 역시 제3국 진출일 것"이라며 "한국은 제조 기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고,

일본은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금융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맞추면 큰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계획에 대해 "일본 경제계가 일본 정부에 '한국을 지지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발신을 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사사키 미키오 일본 측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무엇을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정상화되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박정규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패키징 기술, 한국의 미세공정 기술의 교류를 통한 '원-원' 가능성을 짚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동안 세계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종속 변수였는데, 이제는 독립 변수로 주도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제1세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23.5.17 kihun@yna.co.kr

이어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 마츠무라 아키히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은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의 협정을 거론하며 "국가 간 관계는 냉각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간 교류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지역외교는 국가 간 관계가 좋지 않아도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관광 산업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에 갈 수 있듯이 일본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 내수시장 축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hun@yna.co.kr, winkite@yna.co.kr

이승연(winkite@yna.co.kr), 김기훈(kihun@yna.co.kr)

한일경제인회의의 양국 단장

입력2023.05.16. 오후 3:35 수정2023.05.16. 오후 3:36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김윤 단장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최재구(jjaeck9@yna.co.kr)

한일 경제인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입력2023.05.18. 오전 7:26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연계 확대, 상호 교류 증진과 더불어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에 서로 협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 "서틀외교 재개와 함께 정부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립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한일경제인회의 #부산엑스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윤 회장 "한일경제협력 새 지평 열 때"...'새로운 미래' 공동성명 발표

입력 2023.05.17. 오후 5:24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성료
경제연계 확대·상호교류 증진 위해 노력하기로
양국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위한 협력도 약속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오른쪽 세번째) 삼양홀딩스 회장과 손경식(맨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16일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면서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 이틀차인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경제인을 대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윤 회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에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 협력의 물꼬를 열어줬다”며 “이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앞장 서서 한일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경제계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정부 간 대화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이틀차인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경제협회 제공]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양국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경제인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세계박람회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일경제인은 오랫동안 바라왔던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일의 제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인은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확인하고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끈끈해지도록 노력하고 협업 확대에 공헌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한층 더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이 긴밀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한국·부산에서의 개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시작된 양국 경제인 간 연례 교류 행사로 한일정상회담 이후 아흐레 만인 지난 16일 개막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올해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4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김은희 ehkim@heraldcorp.com

손경식 회장 "한·일, 아시아 단 2개의 OECD 회원국이자 미국 동맹국...확고한 번영 위해 협력 필수"

입력2023.05.16. 오후 5:02 수정2023.05.16. 오후 5:12

16일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 연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한·일은 서로가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엄중한 세계 정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안정된 한일 관계 구축이 반드시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한일경제인회의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이뤄졌다.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64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75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현실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서 2개국밖에 없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은)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동아시아 등 세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일 3개국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는 급속한 기술 진보로 다양한 신산업들이 태동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급속하게 변해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실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상호 배타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조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양국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부문은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일본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비롯해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면 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對) 중국 전략 관련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통일을 지향하면서, 중국의 대만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엄중한 세계 정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간다면 세계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미래 세대 간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일본에서 주목받는 K팝을 거론하면서 “양국의 청년 세대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일 양국을 오가며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민간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역지사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공통점도 찾을 수 있고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다”며 “서로 논의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대 yeongdai@heraldcorp.com

"일본도 부산 엑스포 돕는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내

입력 2023.05.17. 오후 9:50

**신산업 협력, 상호교류 촉진도 적극 나설 것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제3국 진출일 것"**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에 자리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면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16~17일 이틀간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 164명, 일본 측에서 75명이 참가했다. 4년 만에 재개된 대면회의다.

공동성명에는 ▷경제 연계의 확대 ▷상호 교류의 촉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을 향한 협력 등 3개 부문의 합의가 포함됐다.

양국 경제인들은 우선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견을 나눴다.

또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메리트, 시너지를 새삼 확인한다”며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경제는 물론 인재, 문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자다.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성공에 협력하고, 2030년 엑스포의 부산 개최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적었다.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김윤 한국 측 단장은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건 역시 제3국 진출일 것”이라며 “한국은 제조 기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고, 일본은 소프트웨어 노하우와 금융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맞추면 큰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계획에 대해 “일본 경제계가 일본 정부에 ‘한국을 지지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발신을 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본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무엇을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정상화되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박정규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패키징 기술, 한국의 미세공정 기술의 교류를 통한 '원-원' 가능성을 예견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동안 세계질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종속 변수였는데, 이제는 독립 변수로 주도적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 마츠무라 아키히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 부장은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의 협정을 거론하며 "국가 간 관계는 냉각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간 교류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지역외교는 국가 간 관계가 좋지 않아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관광 산업 협력을 제안하며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에 갈 수 있듯이 일본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 내수시장 축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zzz@heraldcorp.com

"한·일, 아시아 중심 새로운 문명사 주도적 새 틀 짜야"

입력 2023.05.17. 오전 11:27

한일경제인회의 이틀째 행사
'경제연계 확대' 다양한 논의
손경식 "안정된 관계 중요"



한일 양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 종속변수로 여겨졌던 한국과 일본도 이제는 독립변수로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때입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윈윈할 수 있을 겁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틀차인 17일 서울 롯데호텔에 모인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날 개막한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시작된 양국 경제인 간 연례 교류 행사로 한일정상회담 이후 아흐레 만에 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올해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20세기 성장을 해왔지만 기술적, 사회·문화적

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또 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지금 시대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위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변화를 앞장서서 기획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디지털 사회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여러 플랜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헤럴드경제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지만 2030년이면 한·중·일의 GDP(국내총생산)가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문명사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오른쪽 사진 오른쪽 세번째) 삼양홀딩스 회장과
손경식(맨 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과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

행사 첫날인 16일 기조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엄중한 세계정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안정된 한·일관계 구축이 반드시 중요하다”면서 “한·일은 서로가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양국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협력, 경제안보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보장, 탈탄소 추구 등 한일 양국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지사지가 중요하다”면서 “(한·일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공통점도, 다른 점도 찾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은희·한영대 기자

김은희 ehkim@heraldcorp.com

"2030년 아시아 중심 새로운 문명사 열릴 것...한·일 주도적 입장의 새 전략 짜야"

입력2023.05.17. 오전 10:25 수정2023.05.17. 오전 10:35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틀차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 좌장
'한일 경제연계 확대' 주제 세션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한영대 기자]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 심화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 종속변수로 여겨졌던 한국과 일본도 이제는 독립변수로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겁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틀차인 17일 서울 롯데호텔에 모인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날 개막한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시작된 양국 경제인 간 연례 교류 행사로 한일정상회담 이후 아흐레 만에 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올해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한일 경제연계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염재호 SK(주)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20세기 성장을 해왔지만 기술적, 사회·문화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또 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지금 시대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위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변화를 앞장서서 기획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디지털 사회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여러 플랜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재호(왼쪽) SK(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염 의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헤럴드경제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지만 2030년이면 한·중·일의 GDP(국내총생산)가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문명사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행사 첫날인 16일 기조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엄중한 세계정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안정된 한·일관계 구축이 반드시 중요하다”면서 “한·일은 서로가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양국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협력, 경제안보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보장, 탈탄소 추구 등 한일 양국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지사지가 중요하다”면서 “(한·일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공통점도, 다른 점도 찾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오른쪽 세번째) 삼양홀딩스 회장과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

김은희 ehkim@heraldcorp.com



尹 대통령 “미래세대 교류·참여 중요...한일 양국 기업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05.15

•윤석열 대통령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5.15,월)오후,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 서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므로,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 가속화되고, 정상 간 서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교류 협력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일한경제협회 단장단 접견

- 한일 관계 및 민간 경제협력에 대해 의견 교환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5.16.-17.)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일한경제협회 회장(前 미쓰비시상사회장) 등 일본 유력 기업인 11명을 5.15.(월) 17:00-17:30 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및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로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양국의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경제계에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공조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 협력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한경제협회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사키 회장은 일한경제협회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경제·인적·문화교류 활동을 5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세계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의 과제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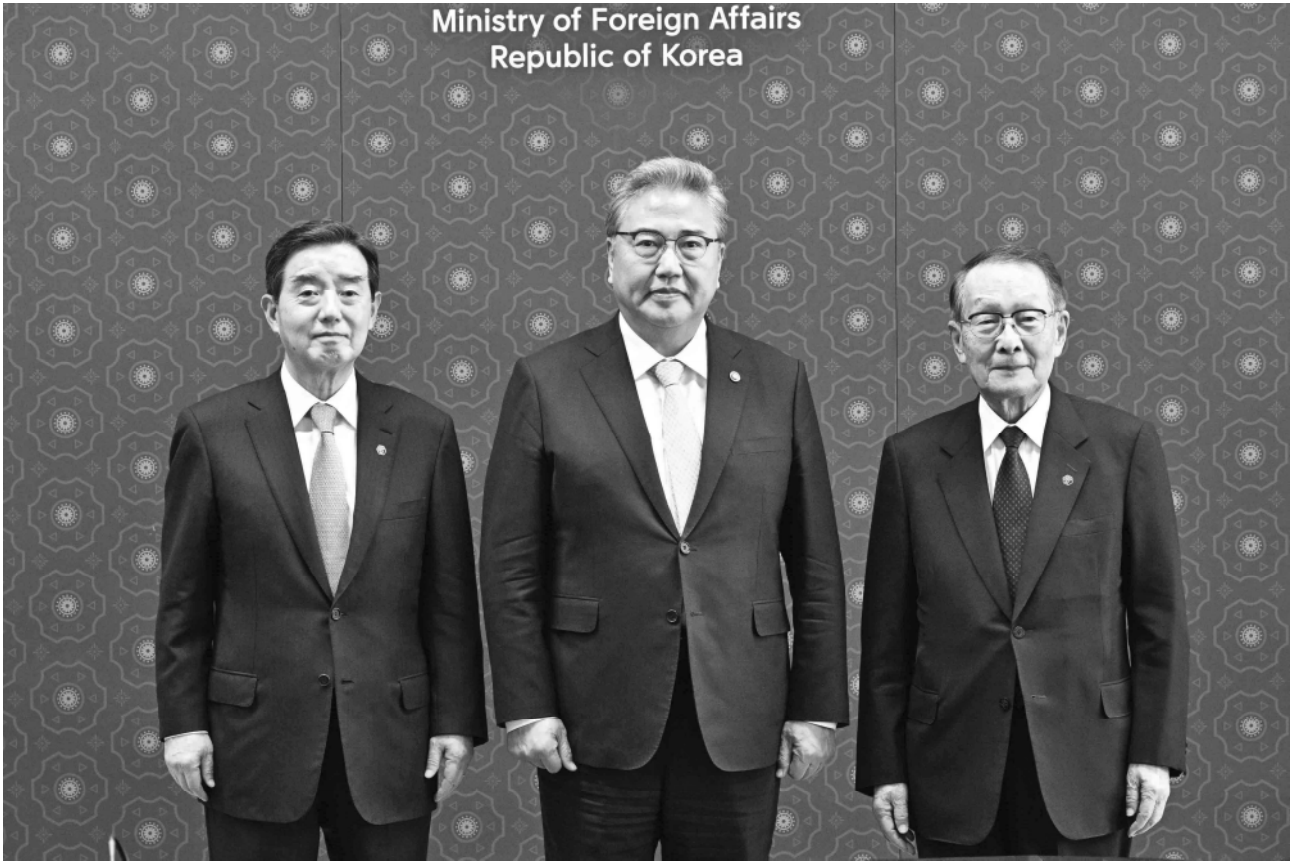
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박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위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의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민간단체의 활동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접견 사진. 끝.





담당 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책임자	심익관	김지희	02-2100-7663
		담당자	서기관	송현태	02-2100-7678

정상회담 성과, 한일 경제계가 앞장서 창출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정상회담(5. 7.) 개최 이후 일주일 만에 열려
- 4년 만에 대면 재개, 신산업분야·교류증진·오사카-부산세계박람회 협력 논의
- 안 본부장, 국제적 의제·신산업 공조, 제3국 진출, 미래세대 교류 적극 지원 밝혀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3. 16. 도쿄, 5. 7. 서울) 것을 계기로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일주일만인 5. 16.(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렸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 간 대표적인 연례 교류 행사로,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240여 명의 양국 정부, 경제단체,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연계 확대 ▲경제·인재·문화 등 상호교류 증진 ▲세계박람회 협력(2025년 일본국제박람회 성공-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은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정부 간 긴밀한 협의로 한일 간 경제협력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선두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 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력에 경의를 표하고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해 강한 뜻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일 간 경제협력 방향으로 ▲글로벌(국제적) 통상현안 협력 ▲신산업분야 공조 ▲제3국으로 협력 범위 확장 ▲젊은 세대 간 교류 지속을 제시하면서 정부도 한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아림 (044-203-5695)
			사무관	이정훈 (044-203-5677)

붙임 1**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요**

□ 일 시 : 2023.5.16.(화) ~ 5.17.(수)

□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2F 크리스탈볼룸

□ 주 최

○ (韓)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日)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前회장),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주 제 :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 1세션 : 한일 경제연계 확대, 2세션 : 한일 상호교류 증진

□ 참 석 : 양국의 정부인사 및 기업인, 약 240여명(일측 74명)

□ 회의일정

■ 5월 15 (월)	
예방활동 13:30~18:00	▶ 일본측 단장단 한국 주요기관 예방
■ 5월 16 (화)	
오전	▶ 일본측 단장단 한국 주요기관 예방(예비) / 일본 대표단 입국
기념촬영 14:30~14:40	▶ 양국 단장 및 내빈 등 주요인사
개회사 14:40~15:10	(개회식) 양국단장, 축하자, 기조강연자, 내빈 등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내빈인사 15:10~15:3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기조연설 15:30~16:10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 상사 이사
■ 5월 17 (수)	
전체회의 09:00~16:20	▶ 세션1(경제연계 확대), 공동성명 심의, 세션2(상호교류 증진)

행사명	주 최	시기·장소	의 제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3.30 서울 (完)	한일 경제연계 확대방안 한일 상호교류 증진방안
무역협회 [·] 관서경제 동우회 간담회	무역협회 관서경제동우회	5.9 오사카 (完)	일본 제2경제권인 관서지역 경제계와 협력방안 논의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5.16 ~ 17 서울	첨단산업 한일 협력 강화 한일기업 제3국시장 공동진출
제12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대한상의 일본상의	6. 9 부산	양국 상의 협력방안 한일청년 인재플랫폼 구축방안
2023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전경련 경단련	7. 4 ~ 5 서울	한일 양자 협력 제3국 내 한일 기업 협력방안
한일 산업협력 포럼	전경련 경단련	7. 6 서울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창설 계기 산업협력 논의
한일 재계회의	전경련 경단련	11.22 도쿄	한일 재계 간 협력 방안 논의

한일경제계 '제3국 사업에서 적극협력' 공동성명 채택 (5.17)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M178ON0X10C23A5000000/>

한일 기업 총수들이 모인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려, 경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제3국 공동 프로젝트,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은 “한일은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다. 세계정세가 어려울 수록 한일의 협력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한일간의 미래는 누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을 확보에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면에서의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기업간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조달과 신에너지 개발 등 협력 안전도 추진되고 있다.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관계개선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 사사키 회장은 “경제·문화 등 다층적인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회장은 “경제계의 우려도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1969년부터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돼 왔다. 신종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일본 측에서 75명, 한국 측에서 164명의 기업 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日韓経済界「第三国案件で積極協力」 共同声明採択

日報 + フォローする

2023年5月17日 18:10

保存 グループシェア

あA 印刷 送信 共有 ツイート Facebook 共有



記者会見する佐々木幹夫氏と金鉉氏（17日、ソウル市）

【ソウル=細川幸太郎】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が17日までソウル市で開かれ、経済連携の拡大を目指す共同声明を採択した。急速に進む日韓関係の改善を受けて「第三国における共同プロジェクト、デジタルやグリーンといった新産業分野などにおいて積極協力する」とした。

日韓経済協会会長の佐々木幹夫・三菱商売元会長は「日韓は相互補完で相乗効果を生み出せる関係だ。世界情勢が厳しくなるほど日韓の協力が難局を切り開く」と話した。

韓国側の会長を務める金鉉（キム・ユン）三義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韓日は勝ち負けを競うのではなく、互いの強みを生かしてグローバル市場を確保していくべきだ」と応じた。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外交面での日韓関係改善とともに、日韓の企業間での連携を呼びかけている。液化天然ガス（LNG）調達や新エネルギー開発といった協力案件も動き出している。

閉会後の記者会見では、現在の関係改善の流れを不可逆的なものにするために、佐々木氏は「経済・文化など多層的な交流を強固にすることが必要」と強調。金氏は「経済界に懸念はあるものの、国民の認識が最も重要。相手の立場で考える努力が大切だ」と話した。

同会議は1969年から年1回、両国で交互に開催されてき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オンライン形式が続いていたものの、今回は3年半ぶりに対面で開催した。日本側からは75人、韓国側は164人の企業経営者らが参加した。

산케이 신문

윤 대통령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 한-일 경제인 회의(5.15)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515-WQA7XH7OBBIJHJBCIOGHOGFS5E/>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일 기업인들이 모이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재계 대표단과 서울에서 면담하고 양국 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EV) 등 첨단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일본 기업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기업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한 사사키 미키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매년 한일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온 경제인회의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최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16, 17일 양일간 서울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尹大統領「ともにビジネス・チャンスを」 日韓経済人会議

2023/5/15 20:59

朝鮮半島桜井 紀雄

【ソウル＝桜井紀雄】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15日、日韓の企業トップらが集まる「日韓・韓日経済人会議」に出席するため訪韓した日本の財界代表团とソウルで面談し、両国企業が半導体や電気自動車（EV）など先端産業で安定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構築に向けて協力していく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

韓国大統領府によると、尹氏は「優れた製造技術を持つ韓国企業と、素材・部品の競争力がある日本企業は相互補完的な協力ができる」と指摘。両国企業が「第三国とともに進出し、ビジネス・チャンスを創出するといった新たなビジョンを提示できるとも期待する」と語った。

面談した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は「日韓が協力すれば、1プラス1イコール2ではなく、3や4にもなれる」と応じた。

毎年日韓交互に開かれてきた経済人会議は2020年以降、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でオンラインでの開催が続いた。今回は16、17両日にソウルで対面では4年ぶりに開催される。



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2018年5月、東京都港区

아사히 신문

□ 서울에서 한일경제인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경제협력 강화 등 논의 [5.16]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5J5RDGR5JUHBI00C.html?iref=pc_ss_date_article

한일 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등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강점을 살린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제3국에서의 사업 전개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원-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하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양국의 강점을 서로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55회째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년간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15일 경제인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본 경제계 대표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

능하다.”며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朝日新聞デジタル > 記事

ソウルで日韓経済人会議、4年ぶり対面開催 経済連携の強化など議論

ソウル=稲田清英 2023年5月16日 17時48分



経済連携について議論する日韓経済人会議＝2023年5月16日、ソウル、稲田清英撮影



日韓の企業関係者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が16日、ソウルで始まった。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再開など日韓関係が大きく改善するなかで、両国それぞれの強みを生かした経済面での連携の拡大などについて話し合う。

会議は2日間の予定。新産業分野での連携や、第三国での事業展開の協力、人的交流の拡大などを幅広く議論し、17日に共同声明を発表する。

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元会長）は開会の挨拶（あいさつ）で、資源・エネルギー価格の上昇や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の再編といった世界経済の急激な変化を挙げたうえで、「日韓両国による協力が、難局を乗り越えるためにもますます必要だと考える」と話した。

韓国経営者総協会の孫京植会長は基調講演で「強みを互いに活用しつつシナジー効果を出し、世界経済の変化に対応して経済発展の機会とすることが両国にとって利益になる」と主張した。

日韓経済人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で交互に開かれており、今回で55回目。新型コロナ禍で過去3年間はオンライン開催だったが、今回は4年ぶりの対面開催となった。

15日には経済人会議に参加するため訪韓した日本経済界の代表団が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ニョル）大統領と面会した。韓国大統領府によると、尹氏は「優れた製造技術を持つ韓国企業と、素材・部品で競争力が強い日本企業の間では相互補完的な協力が可能だ」として、半導体や電気自動車など先端分野での安定した供給網の構築に向けた協力を期待を示したという。（ソウル=稲田清英）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연계 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 (5.17)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5K62KNR5KUHBI006.html?iref=pc_ss_date_article

한일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17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 등 한일관계의 빠른 개선을 환영하고, 한일 이외의 제3국에서의 공동사업과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한일 양국에서 총 2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제3국에서의 사업전개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공동성명은 “연계·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장점과 시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일 경제계가 경제에 그치지 않고 인재와 문화, 지역 등 폭넓은 교류 촉진에 힘쓰기로 했다.

이 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55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년간은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日韓経済人会議が共同声明 「連携・協力が生み出すメリットを確認」

ソウル=稲田清英 2023年5月17日 18時26分



ソウルで2日間にわたって開催された日韓経済人会議=2023年5月17日、稲田清英撮影



日本と韓国の企業関係者らが経済連携のあり方などを話し合う「日韓経済人会議」が17日まで2日間、ソウルで開かれた。17日にまとめた共同声明は、両首脳によ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など日韓関係の急速な改善を歓迎し、日韓以外の第三国での共同事業や、デジタルなど新産業分野での協力拡大を打ち出した。

会議には日韓合わせて約240人が参加。新産業分野での連携や、第三国での事業展開の協力、人的交流の拡大などを議論した。共同声明は「連携・協力によって生み出すことが出来るメリット、シナジーを改めて確認」し

たうえで、日韓の経済界が経済にとどまらず、人材や文化、地域間など幅広い交流の促進に取り組むとした。

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で交互に開かれており、今回で55回目となった。新型コロナ禍の影響で過去3年間はオンライン開催だったが、今回は4年ぶりの対面開催となった。

(ソウル=稲田清英)

한일경제인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경제협력확대에 기대의 목소리 **(5.16)**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516/k10014069211000.html>

한일 경제계 대표들이 교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최근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서울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양국은 함께 달려가야 할 소중한 파트너로서 상호이해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셔틀외교 재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과거 최악으로 평가받던 한일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자원과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양국 경제계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환경 분야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日韓経済人会議」4年ぶり対面で開催 経済協力拡大に期待の声

2023年5月16日 18時46分 日韓関係

日本と韓国の経済界の代表が交流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ソウルで開かれ、出席者からは、さきの日韓首脳会談などを受けた両国の関係改善の流れの中で、経済協力の拡大に期待する声が聞かれました。

「日韓経済人会議」は、両国の経済交流の促進を目指して1969年から毎年開かれ、ここ数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オンラインでの開催でしたが、ことしはソウルで、4年ぶりに対面で行われました。



この中で、韓国側の韓日経済協会のキム・ユン会長は「両国は、共に走るべき大切なパートナーであり、相互理解の中で善意で競争しながら積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シャトル外交』の再開などにより、韓日関係はさまざまな分野で強固になると確信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これに対し、日本側の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は「過去最悪と言われた日韓関係は大きく改善に向かっているが、資源やエネルギー価格が上昇し、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を余儀なくされるなど、両国の経済界は大いに翻弄されている。明るい未来と発展のため、討議を進め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会議は17日までソウルで開かれ、環境分野での連携や文化交流の促進を通じて経済協力を拡大する方策などを議論する予定です。

